F-F1-75

봉의꼬리과 양치식물 3종의 월동에 미치는 재배장소 및 피복방법의 영향

Effect of Culture Sites and Mulching Methods on Overwintering of Three Pteridaceae Ferns

오훈근·장영득·이철희* (Hoon Geun Oh·Young Deug Chang·Cheol Hee Lee*)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Dept. of Horticulture, Chungbuk Nat'l. Univ., Cheongju 361-763, Korea)

본 연구는 관상가치는 높으나 한반도 남부에 자생하여 내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봉의꼬리 (Pteris multipida), 큰봉의꼬리(P. cretica) 및 반쪽고사리(P. dispar)의 겨울철 무가온 재배를 통한 저비용 월동재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포트묘에서 재배한 식물을 2006년 12월에 월동장소를 충북대 노지포장과 무가온하우스2장소로 하여 지상부만 지면 위로 나오도록 포트를 묻은 후 각각 피복방법을 3처리 즉 무피복, 왕겨피복(3cm) 및 비닐터널로 처리하여 월동시켰다 무가온 하우스에서는 2주 1회 관수하였으며, 노지에서는 별도의 관수를 하지 않았다 재배 14주후 생존율, 20주후 초장, 초폭, 엽수, 엽장, 엽폭,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3종 모두 무가온 하우스에서 생존이 우수하였다특히 봉의꼬리는 무가온하우스에서 월동이 양호하고 노지에서도 피복만으로75% 이상의 월동생존율을 보였다 큰봉의꼬리와 반쪽고사리는 노지에서 월동은 거의 되지 않았으나 무가온하우스에서는 약간의 피복만으로 생존율을 높일수 있었다. 그러므로, 봉의꼬리과 3종은 무가온 시설 내에서는 월동이 가능하지만 노지에서는 봉의꼬리만이 약간의 피복으로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82-43-261-2526, Email: leech@chungbuk.ac.kr

F-F1-76

장구채의 새싹채소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

Several Factors Affecting Sprout Vegetables Production of Silene firma

이무열, 신소림, 이철희* (Moo Yeul Lee, So Lim Shin and Cheol Hee Lee*)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Dept. of Horticulture. Chungbuk Natl. Univ., Cheongiu 361-763, Korea)

식·약용하며, 관상가치가 높아 경관작물로도 유망한 장구채의 종자로 새싹채소를 개발하,고효율적인 재배 및 유통방법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전년도 황숙기에 채종한 종자를 음건하 여 저온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종자발아율은 온도 및 광조건을 달리하여 페트리접시에 100립씩 치상하 여 2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적정 재배기간 및 온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발아된 종자를 암상태5~ 30℃에서 10일 동안 재배하여 새싹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출하 전 적정 녹화기간을 구명하기 위하여 암상태에서 적정 재배기간 동안 기른 휴0~3일로 녹화기간을 달리하여 생육정도를 조사하였다수확 한 새싹채소의 적정 저장용기 및 온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확한 후 수세한 새싹채소**雲**ET상자에 포장하여 통기구(유, 무) 및 저장온도(4, 10℃)를 달리하여 10일 동안 수분함량 변화와 상품등급을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장구채 종자는 광조건에 관계없이 발아하였으며특히 명조건 30℃에서 8일차에 60.6%의 최적발아율을 보였다 암상태에서 20℃에서 8일 동안 재배하는 것이 길이생장 촉진에 적합하 였다. 암상태에서 재배한 새싹은 녹화시키면3cm 내외의 길이 생장을 보였으며 2일 녹화하여 출하하 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확한 새싹채소는 밀봉할 때 저장성이 우수하였으며4℃에서는 7일 후 1.94%, 10℃에서는 6일 후 6.42%의 수분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품가치도 우수하게 지속되어 저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장구채는 종자의 발아율 및 새싹의 생육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높아 새싹채소로 개발하기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82-43-261-2526, E-mail: leech@chungbuk.ac.kr